



The 9th
ARAB
FILM
FESTIVAL
مهرجان الفيلم العربي

제9회 아랍영화제

2020.7.16^{THU} ~ 7.21^{TUE}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이화여대 ECC

Seoul Arthouse MOMO EWHA WOMANS UNIV. ECC

부산 영화의전당

Busan Busan Cinema Center



The 9th ARAB FILM FESTIVAL

مهرجان الفيلم العربي

주최
Host



주관
Organizers



후원
Sponsors



Host Korea-Arab Society

Organizers ARAB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Busan Cinema Center

Sponsors Arab Diplomatic Corps
S-OIL Science Prodigy and Culture Foundation
Arthouse MOMO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한국-아랍소사이어티 Korea-Arab Society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403호
Trade Tower #1403, 511,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164
TEL +82-2-551-7130 **FAX** +82-2-551-7133 **EMAIL** info@korea-arab.org
www.korea-arab.org

목차

Contents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소개	02	Korea-Arab Society in Brief
인사말	03	Greeting Message
서문	04	Foreword
올해의 특징	06	Things Worth Noting at ARAFF 2020
개막작	08	Opening Film
아라비안 웨이브	10	Arabian Wave
포커스2020: 아랍 여성 감독의 오늘과 내일	22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프로그램 이벤트	34	Program Events
티켓 안내	36	Ticket Information
상영관 안내	38	Theater Information
상영시간표	40	Screening Schedule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소개

명칭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

성격

아랍과의 전방위 협력 채널로서 설립된 민·관합동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

창설취지

한국과 아랍 양측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재단을 창설, 공동 운영하면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도모

참여자

한국 및 아랍 22개국의 정부, 기업, 단체

아랍 22개국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지부티, 카타르, 쿠웨이트, 코모로, 튀니지, 팔레스타인

재원

양측 정부와 기업의 기여금으로 조성

사업목적

- 아랍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유력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교류사업

홈페이지

www.korea-arab.org

Korea-Arab Society in Brief

Official Name

Korea-Arab Society (KAS)

Description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to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on wide-ranging areas between Korea and the Arab world unde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urpose

Korea-Arab Society was founded and is ru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of Korea and the Arab nations and business to exp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between Korea and the Arab world.

Participants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s of 22 Arab nations, corpor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The 22 Member States of the Arab League

Algeria, Bahrain, Cormoros, Djibouti, Egypt, Iraq, Jordan, Kuwait, Lebanon, Libya, Mauritania, Morocco, Oman,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omalia, Sudan, Syria, Tunisia, United Arab Emirates, Yemen

Source of Funds

Contributors received from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the Arab nations

Major Projects

- Building network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 Exchanges in culture and academia for better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Homepage

www.korea-arab.org



인사말 Greeting Message

앗쌀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제9회 아랍영화제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매년 6월 초 여러분과 만나오던 일정을 한 달 반 늦추어 아랍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어려운 여건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아랍영화제로 걸어오시는 한걸음, 한걸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올해 아랍영화제에서는 이집트의 중견 감독 타미르 아슈리의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Photocopy)를 포함한, 아랍 12개국의 영화 11편을 7.16(목) ~ 7.21(화)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상영합니다. 아랍영화를 통해 아랍인들의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아랍영화제에 오시는 분들께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아랍영화제 스태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9회 아랍영화제가 관객 분들과 스태프 모두에게 보람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는 아랍영화제가 10주년을 맞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관객 분들이 직접 찾아오는 영화제가 되도록 우수한 상영작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영화제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슈크란.

Assalamu alaykum, Greetings.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shown their interest and support towards the 9th ARAB Film Festival (ARAFF). Due to the COVID-19, the festival has been pushed back to July, a month later than usual. In times like this, we appreciate the visit from each audience more than ever.

This year's ARAFF, scheduled from July 16 to 21 at Arthouse MOMO in Seoul and the Busan Cinema Center, is to showcase 11 films from 12 Arab nations starting with its opening film *Photocopy*, directed by Tamer Ashry, a veteran filmmaker from Egypt. I am confident that this year's festival will offer the joy of discovering both unique and universal ways of life in the Arab world, which we hope to share with many audience members.

I also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wards the staff members of this year's ARAFF for their effort to accommodate the festival while keeping the social distancing policies. I hope the 9th ARAFF will become a rewarding and inspiring experience for the audience as much as it is for the staff.

Next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RAB Film Festival. We promise yet another outstanding line-up and program to welcome more audiences onsite next year. My sincere thanks go out to all those who take an interest in and value the ARAB Film Festival.

Shukran.

김진수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Jin Soo KIM

Secretary-General, Korea-Arab Society



서문 Foreword

아홉 번째 아랍영화제가 열립니다. 아랍영화제는 국내 극장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다소 낯설게 여겨지기 쉬운 아랍 영화들을 매년 꾸준히 소개하며, 이를 통해 아랍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여 왔습니다. 지난 8년간 아랍영화제와 아랍영화들에 따뜻한 관심과 호응을 보여 준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9회째를 맞이하며, 올해도 다양한 아랍 국가의 우수작 11편을 준비했습니다.

9회 아랍영화제는 세계의 모든 이들과 함께 힘들게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하게 되어 여러모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영화제는 준비하는 이들과 참여하는 이들이 다 같이 만들어 가는 축제의 성격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회 아랍영화제는 아트하우스 모모와 부산 영화의전당 등 상영공간 및 관할 기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관객 여러분과 스태프, 영화제와 관련 공간을 오가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함께 영화를 보는 오프라인 상영을 진행하여 영화제의 기본 성격을 살려 나가는 한편, 상영과 연계된 행사는 상당 부분 온라인 진행으로 보완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회 아랍영화제가 관객들과 스태프,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끼고 나누는 영화제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객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랍영화제가 1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매년 개최해 온 6월 첫 주에 관객 여러분들과 만나 즐겁고 풍성한 영화 축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세계가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 인사 드립니다.

슈크란.

ARAB Film Festival opens the curtain on its 9th edition. ARAFF has been introducing multifaceted charm of Arabic culture to Korean audience through its cinemas that are relatively hard to see in the theaters otherwise. The ongoing support our audience showed over the past eight years enabled us to celebrate our 9th year. 11 outstanding films from Arab world are awaiting all of you.

We had more concerns than ever in preparation as the festival takes place in the state of COVID-19 pandemic. I believe that film festivals are in nature, festivity co-created by organizers and participants. In this year's ARAFF, the safety of everyone who works for and visits the festival will be our essential priority. We will therefore work closely with the staff at our screening venues, Arthouse MOMO and Busan Cinema Center, and other related agencies to make the festival feel safe and pleasant. While we host some post-screening events online for a safety reason, offline screenings will still take place with preventive measures to keep the true spirit of film festival a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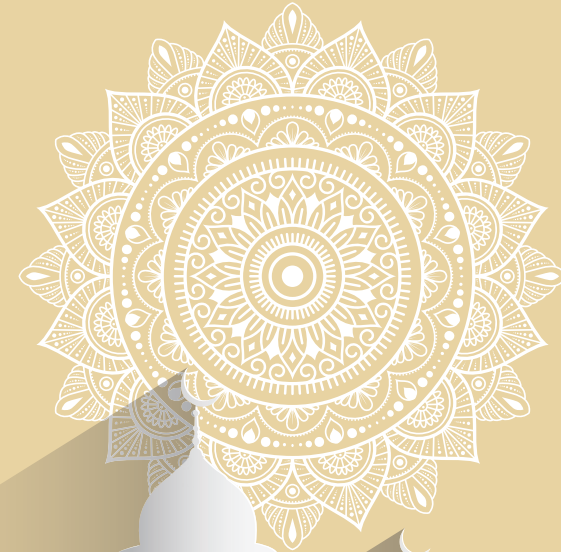
In the hope for the 9th ARAB Film Festival to remain as a caring and welcoming event, I sincerely ask for audience's kind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 hope the world will be much safer place by the time the 10th ARAB Film Festival opens, so that we can come back with more exciting programs in our regular festival season, early June.

Shukran.

최낙용
아랍영화제 집행위원장
Nag-yong CHOI
Festival Director, ARAB Film Festival

The 9th ARAB FILM FESTIVAL

مهرجان الفيلم العربي





올해의 특징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아랍영화제에서는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아랍의 최신 영화부터 칸, 베니스, 토론토, 산세바스티안 등 세계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아랍 감독들의 작품까지, 아랍 12개국 11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랍의 다양한 시선, 새로운 세대의 발견’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소개되는 제9회 아랍영화제의 상영작들에는 기존에 국내의 영화제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아랍 영화 거장들의 최근작은 물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감독들의 데뷔작이 대거 포함되어 한층 더 다채로워진 아랍 영화의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막작을 필두로 ‘아라비안 웨이브’와 ‘포커스 2020: 아랍 여성 감독의 오늘과 내일’의 2개 섹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영화를 통해 아랍의 역사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채롭고 새로운 문화와 삶을 고루 만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선 개막작으로 선정된 이집트 영화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는 고령화 사회와 소통 단절이라는 현대 산업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을 따뜻하게 고찰하는 시선을 통해 오늘날 아랍의 일상을 발견하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영화를 통해 동시대 아랍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아라비안 웨이브’에서는 전쟁과 디아스포라, 그 이후로 계속되는 삶의 현재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 주는 작품 5편을 소개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의 실상과 그 안에서 생존과 평등을 위해 싸우는 여성들의 연대를 담은 다큐멘터리부터 수 차례 전쟁을 겪어 온 레바논의 역사, 오랜 팔레스타인 분쟁, 이라크 전쟁의 비극이 개인의 삶과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을 자전적 에세이 또는 성찰적 극영화로 풀어낸 작품들, 신앙과 자본, 가족 등의 가치가 뒤섞여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풍자하는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아랍의 현재와 현재를 있게 한 역사의 흐름에 대한 다각도의 깊이 있는 성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랍 영화에서 최근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세대의 감독들, 특히 여성 감독들의 약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섹션이자 주제전인 ‘포커스 2020: 아랍 여성 감독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아랍 영화계의 중견으로 자리잡은 감독부터 최근 세계 영화제의 주목을 받으며 빛나는 데뷔전을 치른 신진 감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각도에서 아랍 사회를 바라보는 아랍 여성 감독들의 영화 5편을 집중적으로 선보입니다. 사회적 부조리를 직접 바꾸고자 선거에 출마하고, 관습적인 성역할이나 강요된 니카프 대신 축구에 대한 열정과 패션의 자유라는 꿈을 통해 가부장적 편견에 맞서며,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전통과 결혼 제도의 모순 및 억압을 넘어서고자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한결 같은 강인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활발해지는 동시대 아랍 여성 감독들의 영화 만들기과 새로운 시선, 그 현재와 무한한 가능성을 제9회 아랍영화제에서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랍영화제 프로그래머
설경숙, 황혜림

Things Worth Noting at ARAFF 2020

ARAB Film Festival (ARAFF) celebrating its 9th edition will showcase 11 films from 12 Arab countries, from the latest works that are rarely introduced to the Korean audience, to those received great acclaim from prestigious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such as Cannes, Venice, Toronto and San Sebastian.

Under the catch phrase ‘Diverse Perspectives & New Generation of Arabs’, the 9th ARAFF line-up includes the works of world-renowned Arab film masters as well as debut films of emerging new generation filmmakers, to offer a glimpse into the diverse spectrum of Arab cinema. Following the opening film, the festival program consisting of 2 sections: ‘Arabian Wave’ and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ncounter various corners of the past and present of the Arab world as well as its cultures and ways of life.

Firstly, *Photocopy* an Egyptian film that opens the festival takes a warm approach to one of the key issues of contemporary society such as aging society and communication breakdown,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e and daily life of the Arab world and induce a sense of empathy that reaches beyond cultural differences.

‘Arabian Wave’, the section reflecting contemporary Arab world, showcases 5 films which contemplates life after war and diaspora from various viewpoints and approaches. While there’s a documentary dealing with women’s solidarity in their fight for survival and equality amidst an ongoing Syrian civil war, other works explore the impact of tragic histories like wars in Lebanon, age-old conflicts surrounding Palestine and Iraqi war, on individual life to sublimate them into autobiographical essay, introspective fiction and satirical comedy on modern society with changing values. All these films in common, convey in-depth introspection on present day Arab and the past which molded such contemporary realities.

One of the most noticeable trends in Arab cinema is the great accomplishments a new generation of filmmakers, especially women filmmakers have been making. This year’s special section,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focuses on 5 films with fresh viewpoints on Arab society from Arab women filmmakers both veteran and emerging directors who earned worldwide acclaim at major film festivals with their debut works. As the women in these films tell their stories of taking social change into her own hands, refusing conventional gender roles, or striving to overcome absurd traditions, the audience can witness the Arab women throughout the generations who all display unwavering strengths. We hope you meet the new viewpoints from Arab women filmmakers of today, and the limitless potentials they offer at the 9th Arab Film Festival.

Programmers, ARAB Film Festival
Suan SEOL & Hei-rim HWANG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

Photocopy

Egypt | 2017 | 96min | Fiction
 Color | Arabic | DCP
 12세 이상 관람가

한국 프리미어 Korean Premiere



인쇄업계에서 은퇴한 마흐무드는 작은 복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간다. 이따금 손님들이 맡기는 문서 복사나 타이핑 작업으로 소소한 수입을 얻고, 가게 앞에 앉아 거리와 이웃들의 삶을 지켜보는 게 그의 주요 일과다. 어느 학생이 맡긴 문서를 통해 공룡의 멸종에 대해 알게 된 마흐무드는 자신의 삶과 멸종된 공룡 사이에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대로 멸종되어 사라져 갈 삶의 방식을, 우울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일념에 용기를 낸 그는 규칙적이고 안온했던 지금까지의 일상을 벗어나기로 한다. 건물주의 부당함에 맞서기도 하고, 다양한 이웃 사촌들과 부대끼며 새로운 활기를 찾아가는 마흐무드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들과 함께 예기치 못한 사랑이 다가온다. 사회적 이슈가 강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꾸준히 해 왔던 이집트의 중견 감독 타미르 아슈리의 장편 극영화 데뷔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와 도시적 삶의 속도와는 또 다른 노년의 시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공존하는 이웃 공동체 내 갈등과 소통을 따뜻하고 세심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When Mahmoud settles for early retirement, he buys a nearby storefront and sets up shop: "Mahmoud's Photocopy". Here, he makes photocopies for pennies and types up documents on his old computer for the occasional customers. Mostly, he sits on his plastic chair out front, and watches the life of the street drift by. One day, a school boy asks him to type up a report on the extinction of dinosaurs. Mahmoud can't help but begin to see some strange parallels with the state of his own life. Driven by a desire to change the depressing reality that his own lifestyle is becoming extinct, he starts a journey that leads him to abandon his comfort zone. Fate meets his suddenly-found courage with challenges, fights, struggles that he was never accustomed to, till he meets his biggest fear: falling in love.

서울 Seoul
 7.16(Thu) 19:30 ACO
 7.19(Sun) 11:30

부산 Busan
 7.16(Thu) 15:20
 7.19(Sun) 12:40

Opening Film



감독 Director

타미르 아슈리
 Tamer Ashry



타미르 아슈리는 이집트와 중동에서 감독, 프로듀서, 각본가, 촬영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손꼽히는 제작사 중 하나인 BEE미디어의 창립자 겸 CEO이기도 한 그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감독이다. 그의 작품들은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으며, 성폭력과 국가 폭력을 다룬 <영안실>(The Morgue), 팔레스타인의 일상을 담은 <가자지구의 사진들>(Pictures from Gaza),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을 다룬 <봄의 심판>(Trials of Spring) 등이 있다. UN과 같은 단체들과 제휴해 인권, 양성평등, 아동학대 등에 대한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다양한 상을 받기도 했다.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는 그의 첫 장편 극영화이다.

Tamer Ashry is a director, producer, script-writer, and cinematographer with 13 years of experience working in film and television in Egypt and the Middle East. He is the founder and CEO of BEE Media, one of the leading production companies in Egypt. He is passionate about creating media that will have a social impact. His work has been screened at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ddressing issues such as sexual harassment, state violence in *The Morgue*, daily life in Palestine in *Pictures from Gaza*, and women's fight for peace in the critically-acclaimed *Trials of Spring*. He has partnered with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to create award-winning campaigns for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and child abuse. *Photocopy* is his first fiction feature film.

아라비안 웨이브

영화를 통해 동시대 아랍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아라비안 웨이브' 섹션의 올해 영화들은 점점 빨라지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서 과거와 현재를 거시적으로 훑어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레바논 영화 <유산>에서 필립 아라틴지 감독은 자신의 가족사 안에 새겨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흥미롭게 펼쳐 보이고, <하이파 거리>에서는 거리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기억을 타고 이라크 전쟁 이후의 역사가 빛어낸 삶의 편린들이 모자이크처럼 지나간다. 일리아 술레이만 감독은 <여기가 천국>에 직접 자신의 모습으로 등장해 세계 속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속 세계의 현재 모습을 풍자적인 시선으로 관조한다. 세 편의 영화는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개인을 매개체로 적극 내세움으로써 현재 아랍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나머지 두 작품은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한 단면을 조명한다. 모로코 영화 <이름 없는 성자>는 고립된 사막 지역의 한 신생 마을을 배경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의 변화를 만화경처럼 담아낸 희극인 반면, <동굴>은 시리아 내전 상황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여성문제라는 현재의 비극을 직시하는 다큐멘터리다. '아라비안 웨이브'의 다섯 작품들과 함께 아랍의 현재와 현재를 있게 한 근대 역사의 역동의 한 조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Arabian Wave

The films showcased in this year's 'Arabian Wave' section highlight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ab world offers a macroscopic overview of its past and present amidst the rapid shift of the region. Lebanese filmmaker Philippe Aractingi's *Heritages* unravels the diasporic history run in the filmmaker's own family, while fragments of lives molded by the post-Iraqi war time slide by the memory of a dying man in the street in *Haifa Street*. The Palestinian filmmaker Elia Suleiman plays his own persona in *It Must Be Heaven* to observe the current state of Palestine within the world and the world within Palestine from a satirical viewpoint. These three films are interesting in the way they highlight Arab sensibilities of today via individuals who are living the history they are placed in.

Two other works shed light on one aspect of present times by focusing on situations occurring in a specific space. The Moroccan film *The Unknown Saint*, set in a newly established village at an isolated desert is a comedy which unravels like a kaleidoscope as it captures changes that take place where change seemed unthinkable, while *The Cave* is a documentary that dives directly into the core of gender issue amidst the social backdrop of the Syrian civil war. These 5 films of the 'Arabian Wave' offer the opportunity to take a glimpse into the contemporary Arab world as well as its dynamic modern history, which molded the present time.

동굴
The Cave

Syria, Denmark | 2019 | 106min
Documentary | Color
Arabic, English | DCP
15세 이상 관람가



지난 8년간 지속된 시리아 내전은 나라 전역을 죽음과 파괴, 공포로 몰아넣고 수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냈다. 전쟁의 포화 속에 황폐해진 동구타 지역, 포위된 시민들의 희망과 안전은 용기 있는 일군의 의료진들이 만든 지하병원 '동굴'에 달려 있다. 내과와 소아과를 담당하며 병원을 이끄는 젊은 의사 아마니를 필두로, '동굴'의 여성 의료진들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가부장적 억압을 당연시하던 지상의 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할 방식으로 자신들의 소임을 다한다. 끊임없는 폭격과 고질적인 물자 부족, 화학무기 공격의 위협에 시달리며 목숨을 걸고 환자를 치료하며, 생존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꿈을 위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를 담은 작품으로, 2019년 토포토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후 2020년 아카데미상 최우수장편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올랐다.

Over the past eight years, the war in Syria has spread death, destruction and horror across the country, cos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and displacing millions. For besieged civilians of Eastern Al Ghouta, hope and safety lie underground inside the subterranean hospital known as the Cave, where pediatrician and managing physician Dr. Amani Ballour and her colleagues Samaher and Dr. Alaa have claimed their right to work as equals alongside their male counterparts, doing their jobs in a way that would be unthinkable in the oppressively patriarchal culture that exists above. Following the women as they contend with daily bombardments, chronic supply shortages and the ever-present threat of chemical attacks, *The Cave* paints a stirring portrait of courage, resilience and female solidarity.

서울 Seoul
7.17(Fri) 16:30
7.21(Tue) 19:30

부산 Busan
7.19(Sun) 17:00
7.21(Tue) 17:00

Arabian Wave



감독 Director

피라스 파이야드
Feras Fayyad



1984년 시리아에서 태어난 피라스 파이야드는 동시대 시리아와 아랍의 정세를 다룬 작업들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장편 다큐멘터리 <알레포의 마지막 사람들>은 2017년 선댄스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뒤 2018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에미상 최우수장편다큐멘터리상, 피바디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화이트 헬멧'으로 불리는 시리아 민방위 조직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구조대원들을 다룬 작품이다. 그 외 작품으로 <시리아의 전사들 사이에서>(Between the Fighter in Syria) 등 다수 TV 다큐멘터리와 장편 다큐멘터리 <나의 탈출기>(My Escape) 등이 있다.

Born in Syria in 1984, Feras Fayyad is an award-winning filmmaker who has received particular recognition for his work on contemporary Syrian issues and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of the Arab world. His most recent film, *Last Men in Aleppo*, premiered and won the World Cinema Grand Jury Prize at the 2017 Sundance Film Festival and earned him a 2018 Academy Award nomination and many awards, including an Emmy for Best Documentary Feature. The film followed a small group of volunteer rescue workers with the White Helmets civil defense organization. His other films include the feature documentary *My Escape* and television documentaries *Between the Fighter in Syria* and *Wide Shot-Close Shot*.

여기가 천국

It Must Be Heaven

France, Qatar, Germany, Canada,
Turkey, Palestine | 2019 | 97min
Fiction | Color | English, French,
Arabic, Spanish, Hebrew | DCP
12세 이상 관람가



팔레스타인을 떠나 제2의 터전을 찾고 싶었던 일리아 술레이만 감독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버릴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새로운 삶을 향한 그의 열망은 이 영화에서 실패를 자초하는 희극으로 전환된다. 술레이만 감독은 파리, 뉴욕 등 세계 대도시를 다니며 제작자들에게 서툴게 자신의 '팔레스타인' 영화를 설명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거리를 응시하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연기한다. 영화 속 술레이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면서 극중 인물의 말처럼 '충분히 팔레스타인 사람 같지 않은' 존재로 어느 곳에도 섞이지 못한다. 감독은 어눌해 보이기도 하고 현자 같기도 한 또 다른 술레이만의 눈을 통해 세상과 팔레스타인의 현재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 준다. 일리아 술레이만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인 신작으로, 2019년 칸영화제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을 수상했다.

Elia Suleiman escapes from Palestine seeking an alternative homeland, only to find that Palestine is trailing behind him. The promise of a new life turns into a comedy of errors: however far he travels, from Paris to New York, something always reminds him of home. From award-winning director Elia Suleiman, a comic saga exploring identity, nationality and belonging, in which Suleiman asks the fundamental question: where is the place we can truly call home? Through the other-worldly gaze of Suleiman's persona, we see Palestine within the world and the world within Palestine.

서울 Seoul

7.16(Thu) 14:00
7.20(Mon) 19:30 AC

부산 Busan

7.18(Sat) 12:50
7.21(Tue) 14:40

Arabian Wave



감독 Director

일리아 술레이만 Elia Suleiman



1960년 나사렛에서 태어난 일리아 술레이만은 1990년대 초까지 뉴욕에서 거주하며 두 편의 단편 영화 <논쟁의 끝을 소개하며>(Introduction to the End of an Argument)와 <암살로 오마주를 바침>(Homage by Assassination)을 만들었다. 그의 장편 데뷔작 <실종의 연 대기>는 1996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신인작품상을 받았으며, 두 번째 장편 <신의 간섭>은 2002년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유럽영화상에서 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팔레스타인>은 2009년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됐다.

Born in Nazareth on 1960, Elia Suleiman lived in New York between 1981 and 1993. During this period, he directed his two first short films, *Introduction to the End of an Argument* and *Homage by Assassination*. His feature debut, *Chronicle of a Disappearance*, won the Best First Film award at the 1996 Venice Film Festival. In 2002, *Divine Intervention* won the Jury Prize at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his third feature, *The Time That Remains*, screened In Competition at the 2009 Cannes film Festival.

유산
Heritages



Lebanon, United Arab Emirates, France,
Switzerland, Germany | 2013 | 96min |
Documentary | Color | Arabic, French | DCP
12세 이상 관람가

한국 프리미어 Korean Premiere

2006년 7월 12일, 레바논에서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다른 어딘가에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 모국 레바논을 떠나는 것도 세 번째. 영화감독 필립 아락틴지는 전쟁과 학살을 피하기 위한 여정이 어느덧 4대째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사진과 아카이브 자료, 가족을 담은 홈비디오 영상을 세밀한 한 폭의 프레스코화처럼 엮어 내며, 감독은 자신과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와 역사에 대한 성찰을 담아낸다. 오스만 제국의 몰락, 프랑스의 통치, 이스라엘의 탄생, 범아랍주의, 레바논 내전 등 중동 역사의 주요 흐름과 맞물리는 조상들의 여정으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탐색의 과정은 깊이와 유머를 품고 있으며, 망명과 기억, 이주에 대한 자전적 에세이로서 정체성과 역사적 유산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On July 12, 2006, another war breaks out in Lebanon. As he leaves his motherland for the third time in his life to settle elsewhere, director Philippe Aractingi realizes that, like him, his ancestors have been fleeing wars and massacres for four generations. In a fresco where photos, archives and home videos of his children subtly interact, he tells the story of his family's travels through the Levant, linking History to an intimate diary. Here, his ancestors' itinerary is confronted by that of Middle Eastern history: the fall of the Ottoman Empire, the French mandate, the creation of Israel, Pan-Arabism, the Lebanese civil war and beyond. His exploration leads him to the universal questions: Can one find peace in exile? Should we unshackle ourselves from our heritage to be free?

Arabian Wave

서울 Seoul

7.17(Fri) 11:30
7.19(Sun) 16:30 ACO

부산 Busan

7.17(Fri) 17:15
7.20(Mon) 17:20



감독 Director

필립 아락틴지
Philippe Aractingi



필립 아락틴지는 작가, 감독, 프로듀서이자 사진가다. 2005년 뮤지컬 코미디 <오토버스>로 데뷔한 그는 5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와 4편의 장편 영화를 연출했다. 2006년 다시 발발한 레바논 전쟁 현장에서 2명의 배우와 함께 촬영한 <폭격 속에서>는 베니스, 선댄스, 두바이 등 40개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23개의 상을 수상했다. <유산>에서는 레반트 지역 100년의 역사와 망명과 전승에 관한 기억을, <듣다>(Listen, 2017)에서는 현대 레바논의 사랑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담아냈다. 2018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Philippe Aractingi is an author, director, producer and photographer. To this day, he has directed and occasionally produced more than 50 documentaries and 4 feature films. In 2004, he directed the chart-topping musical comedy *Bosta* (2005). He shot his second film *Under the Bombs* with only two actors in the midst of the turmoil of Lebanon war in 2006, mixing both improvised and scripted scenes. It was selected in 40 festivals including Venice, Sundance and Dubai, and it won a total of 23 awards around the world. *Heritages* explores the past 100 years in the history of the Levant region, while *Listen* (2017) covers the beauty and difficulty of a modern-day Lebanese love story. Philippe Aractingi was named Chevalier de l'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in 2018 by the Government of France for his contributions to art and cinema.

이름 없는 성자

The Unknown Saint

Morocco, France | 2019 | 100min
 Fiction | Color | Arabic | DCP
 12세 이상 관람가



돈가방을 훔쳐 달아나던 아민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언덕 위에 구덩이를 파고 돈가방을 묻는다. 몇 년 후 출소해 돈가방을 찾으러 간 아민은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 사람들은 그곳을 최근 발굴된 '이름 없는 성자의 무덤'으로 부르며 경배하고 있다. 멀리서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로 인해 언덕 아래에는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아민은 돈가방을 찾을 기회를 노리며 마을에 머물기 시작한다. 어이없는 상황이 주는 헛웃음으로 시작한 영화는 마을 속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를 통해 사막 지역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예리한 시선으로 보여 준다. 그들의 삶은 더 나아가 신앙과 자본, 가족 등의 가치가 뒤섞여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기도 하다.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영리한 코미디로, 2019년 칸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상영됐다.

A man steals a big bag of money and escapes into the hills with the police hot on his trail. Before he is arrested, he digs a grave to bury the cash and disguises it as a modest tomb. Years Later, Amine is released from prison and sets off to find his money. In the meantime, a religious shrine has been built directly over the place he buried his cash. The mausoleum honors and unknown saint from the region whose tomb was recently discovered. Down the hill from the resting place of the "The Unknown Saint", a new village subsists on the pilgrims who travel from far and wide to visit the mausoleum. Amine settles into the village and begins plotting a way in.

서울 Seoul
 7.18(Sat) 14:00
 7.21(Tue) 11:30

부산 Busan
 7.18(Sat) 17:10
 7.21(Tue) 19:30



감독 Director

알라 에딘 알젬
 Alaa Eddine Aljem



마라케시의 시각예술대학(ESAV)과 브뤼셀의 영화학교 INSAS에서 공부한 알라 에딘 알젬은 여러 편의 단편 영화를 연출했고, 그중 <사막 물고기>(The Desert Fish, 2015)는 모로코 국립영화제에서 비평가상, 각본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름 없는 성자>는 그의 장편 데뷔작이다. 이 영화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의 오픈도어스랩에 참가해 지중해 남부 국가의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EU의 미디어 문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된 ICAM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 <스크린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한 '내일의 아랍 스타 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Trained at ESAV Marrakech and INSAS in Brussels, Alaa Eddine Aljem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among them *The Desert Fish* (2015) took the Critics, Screenwriting and Grand Prize at the Moroccan National Film Festival. *The Unknown Saint* is Aljem's debut feature. With this project, Aljem participated in the Open Doors Lab at the Locarno Festival, where it won the ICAM (Investing in Culture & Art in the South Mediterranean) award. In 2016, Alaa was named by 'Screen International' as one of the Five Arab Stars of Tomorrow.

하이파 거리

Haifa Street

Iraq, Qatar | 2019 | 79min
 Fiction | Color | Arabic, English
 DCP
 15세 이상 관람가



미군이 점령한 2006년의 바그다드는 종파 분쟁으로 폐허가 됐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치와 정치적 신념을 위해 테러를 자행하는 저격수들로 가득한 하이파 거리는 그 폭력의 정점에 있다. 아흐마드는 연인 수아드와 그녀의 딸 나디아를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가던 중 저격수의 총에 맞는다. 수아드는 총탄의 위험이 도사리는 거리에서 아흐마드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나디아는 수아드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들과 신념을 달리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청한다. 미군과 함께 아부그라이브에서 생활했던 아흐마드는 그곳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거리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계속 지키려는 카메라 안에는 수아드에게 전하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담겨있다. 하이파 거리 속 사람들은 역사와 욕망, 회한으로 만들어진 각자의 지옥에서 하루하루 위태롭게 살아간다. 영화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없는 비극의 실상을 인물의 의식 안팎을 넘나들며 촘촘히 포착한다.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수상작.

It's 2006 and Baghdad is ravaged by sectarian violence. Haifa Street is the epicentre of the conflict, with masked gunmen and snipers reigning down terror for reasons and political allegiances that are unclear. When Ahmed gets dropped off there by taxi on his way to his beloved Suad's house to ask for her hand in marriage, he gets shot by Salam, an anxious young sniper who's living his own personal hell on a rooftop above. Suad desperately tries to save Ahmed, but Salam prevents anyone from approaching him under the threat of gunfire. When her daughter Nadia elicits the help of their cunning neighbour Dalal, all hell breaks loose under the ominous presence of the American occupation.

Arabian Wave

서울 Seoul
 7.17(Fri) 14:00
 7.19(Sun) 19:30

부산 Busan
 7.16(Thu) 17:30
 7.19(Sun) 19:30



감독 Director

무한나드 하이알 Mohanad Hayal



무한나드 하이알은 이라크에서 태어났다. 가장 최근에 만든 단편 영화 <생일선물>은 2013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으며 로드국제영화제에서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다. 베테랑 저널리스트이자 프리랜서 중군 촬영가로 이라크군과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S 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으며, 바그다드에서 활동하며 이라크독립영화센터를 설립해 영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파 거리>는 그의 첫 장편 극영화이다.

Mohanad Hayal was born in Iraq. His last short *Happy Birthday* was selected for the 2013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received the Rising Star Award at the 2013 Rhod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ohanad is a seasoned journalist and is currently a freelance war videographer, documenting battles between the Iraqi Army and ISIS. He resides and works in Baghdad, conducting filmmaking workshops as one of the founders of the Iraqi Independent Film Centre. *Haifa Street* is his first feature film.

포커스 2020 : 아랍 여성 감독의 오늘과 내일

올해 작품들의 한 경향은 새로운 세대의 여성 감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아랍 영화계의 중견 여성 감독으로 자리잡은 하이파 알 만수르 감독의 작품과 작년에 장편 데뷔작을 만든 힌드 부제르마, 무니아 맛두르 등 젊은 감독들의 작품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은 아랍 영화계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세대를 이어 지속될 뿐 아니라 점점 활발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 새로운 세대 여성들의 영화가 반가운 것은 그들을 통해 전혀 새로운 각도로 아랍 사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특별전, '포커스2020: 아랍 여성 감독의 오늘과 내일'에 포함된 작품들은 이러한 다양함을 잘 보여 준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거장과 신예의 영화로, 하이파 알 만수르의 <완벽한 후보자>와 샤하드 아민의 데뷔작 <바다의 소녀>가 있다. <바다의 소녀>는 여성을 희생시키는 부당한 관습에 대한 비판을 몽환적인 흑백 영상과 실험적인 극영화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고, <완벽한 후보자>는 사회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꾸겠다는 여성의 모습을 하이파 알 만수르 감독 특유의 대담한 화법으로 담았다. <파피차>는 무니아 맛두르 감독의 데뷔작으로 90년대 알제리를 배경으로 10대 소녀가 자신의 꿈을 좇는 동시에 가부장적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모습을 그린다. 상황은 암울하지만 소녀들의 모습은 용감하고 발랄하다. 힌드 부제르마의 첫 장편 극영화인 <누라는 꿈꾼다>는 현대의 튀니지 사회에서 결혼과 관련된 제도에 억압된 한 여성의 모습을 내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두 첫 장편이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그 안의 여성의 강인함과 대담함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U-17 여자월드컵 요르단 여자축구 대표팀을 따라가며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차세대 여성들의 꿈을 아기자기하게 담은 <17: 축구하는 소녀들>도 다큐멘터리 특유의 현장감으로 소녀들의 실제 삶을 함께 체험하는 재미를 선사한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한결같은 강인함으로 현재를 사는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섹션이다.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One of the noticeable trends of this year's Arab films is the outstanding accomplishments of a new generation of female filmmakers. Especially the wide spectrum of female filmmakers from the veteran female filmmaker Haifaa Al Mansour to those who have entered the scene with impressive feature works last year including Hinde Boujemaa and Mounia Meddour shed hope on the fact that women's works in the Arabic film scene are not only continuing their legacy, but will become even more rigorous as well. The films included in this year's special program,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are good examples of such diversity.

First to mention are films from a master and newcomer from Saudi Arabia, Haifaa Al Mansour's *The Perfect Candidate* and Shahad Ameen's debut feature, *Scales*. *Scales* conveys a critique of the old custom of female sacrifice through an experimental style and dreamy black and white images, while *The Perfect Candidate* takes a bold approach, a signature style of the filmmaker to a woman who takes social change into her own hands. Mounia Meddour's feature debut film, *Papicha* follows the journey of a teenage girl in pursuit of her dreams taking a shot at a society permeated with patriarchal violence in 1990s' Algeria. The situation might seem depressing, yet the young girls are brave and full of life. Another debut feature, *Noura's Dream*, directed by Hinde Boujemaa introduces personal and realistic observations of a woman suffering from oppressive institution related to marriage in the modern Tunisian society. These two debut features offer realistic views on society's negative sides, but express the underlying strengths and daring potentials of women in impressive ways. *17* is a documentary which follows the Jordanian U-17 Women's World Cup team's saga to invite the audience into the actual life scenes of the young girls' lives as they struggle against tradition. This section offers the opportunity to meet a diverse range of women from different generations who live present times in their own ways, but with the common traits of unwavering strength.

17: 축구하는 소녀들

17

Jordan | 2017 | 74min
Documentary | Color | Arabic,
English | DCP
전체관람가

한국 프리미어 Korean Premiere



<17: 축구하는 소녀들>은 2016년 'FIFA U-17 여자월드컵' 출전을 준비하는 요르단 여자축구팀의 여정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다. 민족도, 종교도, 사회적 계층도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소녀들이 아직은 꿈 많은 열일곱 이하의 나이와 축구를 한다는 공통점 아래 모여 국가대표라는 하나의 목표에 도전한다. 각지에서 모인 소녀들 중 누가 과연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훈련도 준비기간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은 세계적인 규모의 월드컵 경기를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축구는 남자들을 위한 스포츠라는 사회적 선입견을 넘어, 축구에 대한 열정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소녀들의 월드컵 도전을 향한 꿈과 희로애락, 치열한 성장의 시간을 담아낸 기록이다.

17 follows the Jordanian under-17 women's football team as they prepare for the FIFA U-17 Women's World Cup Jordan 2016. Coming from different backgrounds, each of the girls has faced a different set of challenges as a national team player. But now they come together to face their biggest challenge yet. 17 is a social exploration into the lives of young women who are passionate about a sport they have been told was only for men. Will Anoud make it in the final squad? Will Leen be ready to play in this world-class event with so little time to prepare? Will the odds finally start working for the team?

서울 Seoul
7.17(Fri) 19:30
7.20(Mon) 14:00

부산 Busan
7.18(Sat) 11:00
7.20(Mon) 19:30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감독 Director

위다드 샤파코즈
Widad Shafakoj



위다드 샤파코즈는 요르단계 스페인 영화감독으로, 세트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전문 교육기관인 SAE 인스티튜트에서 장학금을 받아 영화제작을 전공했다. 그녀가 연출한 단편 다큐멘터리 <ID:000>은 학대받는 요르단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요르단의 법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논쟁적인 소재의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으며, 2014년 첫 장편 다큐멘터리 <당신이 나를 죽이려던 거라면>(If You Meant to Kill Me)을 완성했다.

A Jordanian-Spanish filmmaker, Widad Shafakoj worked as a set designer before getting a scholarship in filmmaking at the SAE Institute. She directed award-winning short *ID:000*, a documentary that talks about graduated orphans in Jordan, and the way abuse has affected their lives. The film made significant changes in the Jordanian law. Widad continues to present controversial stories in her work, and she succeeded in making her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If You Meant to Kill Me* in 2014.

누라는 꿈꾼다 Noura's Dream

Tunisia, Belgium, France, Qatar | 2019
92min | Fiction
15세 이상 관람가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독립적인 여성 누라는 병원 세탁소 일로 생계를 꾸려 세 아이를 양육한다. 남편 자밀은 사기와 강도를 일삼아 감옥에 들락거리는 신세다. 남편이 또 감옥에 간 동안 그녀는 라스아드와 연인 관계가 된다. 둘의 관계가 발각되면 5년 형을 살아야 하기에, 누라는 이혼 청구서를 낸다. 하지만 승인을 며칠 앞두고 남편이 돌아오면서 둘의 꿈은 무산된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남편이 복수하려 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튀니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률 및 경찰로 대변되는 사회 제도가 얼마나 여성의 삶에 부당하게 작용하는지 고통스럽게 보여 준다. 영화는 그에 맞서는 주인공 누라를 일방적 약자로 그리기보다는 감정적이지만 강인한 현실감각을 잃지 않는 인물로 그린다. 그 점이 영화를 사랑에 빠진 한 여성의 치정극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누라 역을 맡은 힌드 사브리리의 명연기는 아랍 영화계에서의 그녀의 명성을 실감하게 한다.

An independent woman, Noura is raising her three children alone, working in a hospital laundry to make ends meet. While her husband Jamel is back in jail, she meets Lassad, the love of her life. Forced to hide their relationship - if it were discovered, they would face 5 years in prison - Noura petitions for divorce but just days before it is granted, the lovers' dream of a life together is threatened by Jamel's imminent release. The series of absurdities caused by Jamel's attempt to revenge on two, shows how the law and institution of Tunisia can make a woman's life miserable. Instead making Noura a vulnerable victim, Boujemaa describes her as an emotional but strong-willed woman with a sense of reality. It gives the film a wide distinction from love triangle dramas.

서울 Seoul
7.16(Thu) 16:30
7.19(Sun) 14:00

부산 Busan
7.16(Thu) 19:30
7.18(Sat) 19:30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감독 Director

힌드 부제르마
Hinde Boujemaa



힌드 부제르마는 2012년 베니스국제영화제 공식 부문에서 상영된 장편 다큐멘터리 <더 나은 내일이였다>(It Was Better Tomorrow)를 연출하며 감독의 길로 들어섰다. 그녀는 전 세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는 투쟁을 지지하는 다양한 캠페인에 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에 첫 번째 단편 극영화인 <...그리고 로미오는 줄리엣과 결혼했다>(...and Romeo Married Juliet)를 만들었다. 장편 극영화 데뷔작인 <누라는 꿈꾼다>는 토론토국제영화제,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Hinde Boujemaa began her career as a director with her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It Was Better Tomorrow*, which screened in Official Selection at the Venice Film Festival in 2012. She is involved as director in a variety of campaigns in support of the fight against the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faced by women worldwide. In 2015 she directed her short fiction *...and Romeo Married Juliet*. *Noura's Dream*, Boujemaa's feature fiction debut, was screened at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San Sebasti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바다의 소녀

Scales

Saudi Arabia, United Arab Emirates,
Iraq | 2019 | 75min | Fiction
B&W | Arabic | DCP
15세 이상 관람가

한국 프리미어 Korean Premiere



황량하고 메마른 섬, 하야트가 사는 가난한 어촌 마을에는 집집마다 딸을 한 명씩 바다에 바쳐야 하는 오랜 관습이 있다. 바다에 딸을 바치는 대신, 마을 남자들이 바다 생명체들을 사냥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아버지 덕분에 아기일 때 제물이 될 운명을 피한 하야트는 마을 안에서 저주처럼 여겨지며 따돌림을 받는다. 굳센 의지를 가진 하야트는 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하지만,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다시 잔혹한 관습에 희생될 위기에 처한다. <바다의 소녀>는 디스토피아풍의 음울한 풍경을 무대로, 폐쇄적인 공동체와 부당한 관습에 맞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몽환적인 흑백 영상으로 담아낸 샤하드 아민의 데뷔작이다. 2019년 베니스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가장 혁신적인 영화에 수여되는 베로나필름클럽상을 수상했다.

Set in a dystopian landscape, *Scales* is the story of a young strong-willed girl, Hayat, who lives in a poor fishing village governed by a dark tradition in which every family must give one daughter to the sea creatures who inhabit the waters nearby. In turn the sea creatures are hunted by the men of the village. Saved from this fate by her father, Hayat is considered a curse on the village and grows up an outcast. Nevertheless, she does not surrender to this fate and fights for a place within her village. After her mother gives birth to a baby boy, Hayat must accept the brutal custom of giving herself to the sea creatures or finding a way to escape.

서울 Seoul
7.18(Sat) 20:30
7.20(Mon) 16:30

부산 Busan
7.17(Fri) 19:30
7.19(Sun) 10:50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감독 Director

샤하드 아민
Shahad Ameen



샤하드 아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 몇 편의 단편 영화를 연출했으며, 그중 <레일라의 창>(Leila's Window, 2011)은 걸프영화제에서 상영됐고 사우디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로 선정된 바 있다. 2013년 두바이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눈과 인어>(Eye & Mermaid)는 2014년 토론토국제영화제, 스톡홀름영화제, 노르웨이 코르트필름페스티벌 렌의 경쟁 부문에 선정됐고, 2014년 아부다비국제영화제에서 아랍에미리트영화 경쟁 부문 최우수상 및 최우수촬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hahad Ameen was born and raised in Jeddah, Saudi Arabia. Her short films include *Our Own Musical* (2009) and *Leila's Window* (2011), which played at the Gulf Film Festival and was named Best Film at the Saudi Film Festival. Her short film *Eye & Mermaid* (2013) premiered at the 2013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was selected for competition at the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tockholm Film Festival and Norway's Kortfilmfestivalen in 2014. *Eye & Mermaid* was also awarded First Prize in the Emirates Film Competition and Best Cinematography at the Abu Dhab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4.

완벽한 후보자

The Perfect Candidate

Saudi Arabia, Germany | 2019
101min | Fiction | Color | Arabic
DCP
12세 이상 관람가



마르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작은 마을 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다.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도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성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시달려야 한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두바이로 가려 하지만 공황에서 출국을 거부당한다. 팍 막힌 상황에서 그녀는 의료 센터 앞길의 보수 요청을 계속 거절하던 남성 의원 대신 자신이 보수 공사를 결정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기로 한다. 마르얌은 여동생들과 함께 기금 마련을 하고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 자매들의 행보는 매번 사회가 원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때문에 장애에 부딪히고 마르얌의 겁 없는 출마는 보수적인 공동체에 하나의 기념비적 도전이 된다. 마르얌과 남성 후보들 간의 팽팽한 접전이 진행되며 마르얌과 가족들의 추진력은 보수적 사회 전체를 한 걸음 앞으로 끌어당긴다.

Maryam is an ambitious young doctor working in a small town clinic. Despite her qualifications, she has to earn the respect of male colleagues and acceptance from her patients every day. After Maryam is prevented from traveling to Dubai in search of a better job, a bureaucratic mixup leads her to stumble on the application for her local city elections and she decides to run. Maryam enlists her two younger sisters to begin fundraising and planning campaign events. While they face the restriction of women's traditional roles in the society at every turn, Maryam's audacious candidacy starts to build momentum and challenges her conservative community.

서울 Seoul
7.18(Sat) 11:00 ACO
7.21(Tue) 14:00

부산 Busan
7.17(Fri) 15:00
7.19(Sun) 14:50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감독 Director

하이파 알 만수르 Haifaa Al Mansour



하이파 알 만수르는 카이로 아메리칸대학에서 문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시드니 대학에서 영화연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이며, 영화 <와즈다>(2012)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만 촬영된 최초의 장편 영화이다. <와즈다>는 전 세계 40여 개 영화제에 초청됐으며, 베니스, 로테르담, 두바이 등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다. 이후 작품으로 국내에 개봉된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의 탄생>(2017), 넷플릭스 영화 <어느 날 인생이 엉켰다>(2018) 등이 있다.

Haifaa Al Mansour finished her bachelor's degree in Literature at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and completed a Master's degree in Directing and Film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Sydney. She is considered the first female filmmaker in Saudi Arabia and her feature film *Wadjda* (2012) was the first feature film ever to be shot entirely inside the Kingdom of Saudi Arabia. Invited to over 40 festivals worldwide, *Wadjda* garnered numerous awards - among others in Venice, Rotterdam and Dubai. Her other works include *Mary Shelley* (2017) and *Nappily Ever After* (2018).

파피차 Papicha

France, Algeria, Belgium, Qatar
2019 | 105min | Fiction
Color | Arabic | DCP
15세 이상 관람가

한국 프리미어 Korean Premiere



1990년대 알제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열여덟 살의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나즈마가 알제리 내전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그린다. 나즈마는 친구 와실라와 밤문화를 즐기기도 하며 세계 다른 곳의 십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한다. 사회 분위기가 더 보수적이 되면서 전통적 관습에 반하는 행동을 금하는 규정이 생겨나고, 그에 순응할 수 없는 나즈마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녀가 준비하는 패션쇼는 개인의 꿈을 향한 여정인 동시에 사회에 맞서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다. 감독 무니아 맛두르가 알제리 내전 당시에 성장기를 보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이야기 속에는 슬픈 현실과 그 속에서도 퇴색하지 않는 소녀들 간의 강인한 우정이 섬세하게 담겨있다. 2019년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상영돼 화제를 모았으며, 2020년 세자르영화상에서 최우수 데뷔작과 신인여배우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Algeria, 1990s. Nedjma, an 18 year-old student passionate about fashion design refuses to let the tragic events of the Algerian Civil War to keep her from experiencing a normal life and going out at night with her friend Wassila. As the social climate becomes more conservative, she rejects the new bans set by the radicals and decides to fight for her freedom and independence by putting on a fashion show. The fashion show Nedjma prepares is not only a way of pursuing her personal dream but a strong statement against the social inhibition. Based on the director Mounia Meddour's own experience of growing up during Algerian Civil War, the story depicts the sad reality as well as the heart-warming friendship among the girls in a sensitive and brave way.

서울 Seoul
7.18(Sat) 16:30 OP
7.21(Tue) 16:30

부산 Busan
7.18(Sat) 15:00
7.20(Mon) 15:00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감독 Director

무니아 맛두르
Mounia Meddour



무니아 맛두르는 알제리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알제리 내전 당시 생존의 위협을 받아 18세가 되던 해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했다. 첫 단편 영화인 <하녀 이야기>(2011)는 생장드뤼즈페스티벌에서 시네+상을 받았고, 유니프랑스 단편영화상을 수상했으며 두바이 국제영화제를 포함한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파피차>는 그녀의 첫 장편 영화다.

Mounia Meddour was born and raised in Algeria. At the age of 18, she moved to France with her family as a result of death threats they received during the Algerian Civil War. She studied journalism before joining the summer directing program at La Fémis in Paris. Her first short film, *Edwige* (2011) won the Ciné+ Award at the Saint-Jean-de-Luz Festival, the UniFrance Short Film Award and was featured in several festivals including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apicha* is her first feature film.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오픈 토크:
아랍 여성 감독의 오늘과 내일

최근 아랍 영화계에서는 여성 감독, 특히 새로운 세대 감독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제9회 아랍영화제에서는 아랍 영화계의 종건으로 자리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이파 알 만수르부터 사회적 이슈가 강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요르단의 위다드 사파코즈, 지난해 놀라운 데뷔작을 선보이며 세계 영화제의 주목을 받은 무니야맛두르, 힌드 부제르마, 사하드 아민 등 무서운 신예에 이르기까지, 특별섹션 '포커스 2020: 아랍 여성 감독의 오늘과 내일'을 통해 소개될 다양한 여성 감독들의 영화와 함께 동시대 아랍 여성 감독들의 영화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억압, 금기와 차별에 맞서는 여성들의 삶과 목소리를 담아내며 아랍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여성 감독들의 현재를 만나고 그 미래를 가능해 본다.

일시 | 7.18 (토) 16:30 <파피차> 상영 후
장소 | 아트하우스 모모 1관
패널 | 신은실 영화평론가
오은경 동덕여대 교수 (『베일 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저)
사회 | 황혜림 아랍영화제 프로그래머

Open Talk:
Arab Women Filmmakers Now

One of the most noticeable trends in Arab cinema is the great accomplishments women filmmakers, especially a new generation of filmmakers have been making. This year's special section, 'Focus 2020: Arab Women Filmmakers Now' focuses on 5 films with fresh viewpoints on Arab society from Arab women filmmakers, both veteran and emerging directors who earned worldwide acclaim at major film festivals with their debut works. In this Open Talk, the lives of Arab women of today, that the films depict, and filmmaking practice of Arab women filmmakers that is increasingly diverse and active in recent years will be discussed.

Date | 7.18(Sat) 16:30 *Papicha* screening & a talk afterwards
Venue | Arthouse MOMO 1
Panels | Eun-shil SHIN (Film Critic)
Eun-kyung OH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Moderator | Hei-rim HWANG (Programmer, ARAB Film Festival)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장소 | 아트하우스 모모 1관 Venue | Arthouse MOMO 1



아라비안 시네토크 1 Arabian Cine-Talk 1

일시 | 7.16(목) 19:30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 상영 후
게스트 | 타미르 아슈리 감독 (온라인 토크)
Date | 7.16(Thu) 19:30 *Photocopy* screening & an on-line talk afterwards
Guest | Tamer Ashry (Director)



아라비안 시네토크 2 Arabian Cine-Talk 2

일시 | 7.18(토) 11:00 <완벽한 후보자> 상영 후
게스트 | 하이파 알 만수르 감독 (온라인 토크)
Date | 7.18(Sat) 11:00 *The Perfect Candidate* screening & an on-line talk afterwards
Guest | Haifaa Al Mansour (Director)



아라비안 시네토크 3 Arabian Cine-Talk 3

일시 | 7.19(일) 16:30 <유산> 상영 후
게스트 | 필립 아라친지 감독 (온라인 토크)
Date | 7.19(Sun) 16:30 *Heritages* screening & an on-line talk afterwards
Guest | Philippe Aractingi (Director)



아라비안 시네토크 4 Arabian Cine-Talk 4

일시 | 7.20(월) 19:30 <여기가 천국> 상영 후
게스트 | 이상용 영화평론가 (오프라인 토크)
내용 | 일리아 술레이만의 끝나지 않은 여정과 작품 세계
Date | 7.20(Mon) 19:30 *It Must Be Heaven* screening & a talk afterwards
Guest | Sang-yong LEE (Film Critic)
Subject | The Ongoing Journey of Elia Suleiman & His Films



티켓 안내 서울

Ticket Information Seoul

티켓 문의 For ticket inquiries, Contact: 02-551-7134

티켓 가격 Ticket Price	1,000원	KRW 1,000
온라인 Online Booking	7.8(수) 14:00 - 7.21(화) July 8(Wed) 14:00 - July 21(Tue)	아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 인터파크, YES24 Arthouse MOMO website, INTERPARK, YES24
현장 매표소 Onsite Ticketing	7.16(목) - 7.21(화) 10:30 - 20:00 July 16(Thu) - July 21(Tue)	아트하우스 모모 티켓부스 At the box office of Arthouse MOMO · 현장 판매는 온라인 예매 잔여분에 한함. Available only for remaining tickets after online booking.

- 한 영화당 1인 4매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현장 동일). · 티켓 분실 및 파손된 경우에 재발행은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You can purchase up to 4 tickets per screening (both in online and onsite booking).
- It is ticket holder's responsibility to keep the ticket safe and undamaged as a ticket will not be re-issued.

취소 환불 안내 Cancellation & Refund policy

취소 규정 Cancellation	해당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 가능 (온라인, 현장 동일) Free of charge up to 2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both for online and onsite bookings) 온라인 예매 취소 시 취소 수수료 1,000원 부과 (*YES24는 취소 수수료 없음) KRW 1,000 cancellation charge for the tickets purchased online (*No cancellation fee on YES24)
환불 규정 Refund	해당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환불. 상영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Full refund up to 2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 no refund once the film begins

- 온라인 예매 후 발권한 표는 매표소에서만 취소 가능합니다.
- 예매 후 부분 취소는 불가합니다. (3매 예매 후 1매만 부분 취소할 경우에도 3매를 모두 취소하고 2매를 다시 예매해야 합니다.)
- Once the ticket booked online is issued, you must visit the box office in person to cancel it.
- A partial cancellation is not allowed (For example, if you want to cancel only one out of three purchased tickets, you must cancel all three and then, re-book two).

상영관 운영 안내 Theater Information

-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영관 입장은 상영 10분 전부터 가능하며, 상영 시작 10분 뒤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므로 꼭 본인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 시작 후 입장 시 지정좌석이 보장되지 않으며 상영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상영 중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관 입장은 영화의 관람등급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하에도 입장 및 관람할 수 없습니다.
- 쾌적한 영화 관람을 위해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은 제한됩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휴대전화, 카메라 등)은 불가합니다.
- The screenings begin on time. You can enter the theater from 1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If you are late more than 10 minutes, you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 As the seats are assigned on reservation, please take the assigned seat only.
- Your seat will not be guaranteed if you arrive after a screening begins. In such cases, please follow staff member's guide to an empty seat.
- Please refrain from moving around or re-entering the theater during the screening.
- Age restrictions on films will be strictly enforced. Children aged 7 and under are not allowed into the theaters regardless of accompanying guardians.
- No food or drinks are allowed in the theaters to keep the screening environment pleasant.
- Any unauthorized audio and video recordings of the films are prohibited by law.

관람등급 안내 Film Ratings

- 전체관람가(전체) | 12세이상관람가(12세) | 15세이상관람가(15세) | 18세이상관람가(18세)
- General audiences (G) | 12 and over (12+) | 15 and over (15+) | 18 and over (18+)



티켓 안내 부산

Ticket Information Busan

티켓 문의 For ticket inquiries, Contact: 051-780-6000

티켓 가격 Ticket Price	1,000원	KRW 1,000
온라인 Online Booking	7.8(수) 14:00 - 7.21(화) July 8(Wed) 14:00 - July 21(Tue)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 Busan Cinema Center website(www.dureraum.org)
현장 매표소 Onsite Ticketing	7.9(목) - 7.21(화) July 9(Thu) - July 21(Tue)	09:00 - 마지막 상영 시작시까지 6층 매표소 From 09:00 till the starting time of the last screening of the day, at the box office on the 6th floor

- 티켓 분실 및 파손된 경우에 재발행은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It is ticket holder's responsibility to keep the ticket safe and undamaged as a ticket will not be re-issued.

취소 환불 안내 Cancellation & Refund policy

취소 규정 Cancellation	온라인: 해당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 가능 취소 수수료 없음 (온라인, 현장 동일) Online: Free of charge up to 2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Box Office: Free of charge before the film begins
환불 규정 Refund	해당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환불. 상영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Full refund up to 2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 no refund once the film begins

- 온라인 예매 후 발권한 표는 현장 매표소에서만 취소 가능합니다.
- 예매 후 부분 취소는 불가합니다. (3매 예매 후 1매만 부분 취소할 경우에도 3매를 모두 취소하고 2매를 다시 예매해야 합니다.)
- Once your ticket is booked online and issued, you must visit the box office in person to cancel it.
- A partial cancellation is not allowed (For example, if you want to cancel only one out of three purchased tickets, you must cancel all three and then, re-book tw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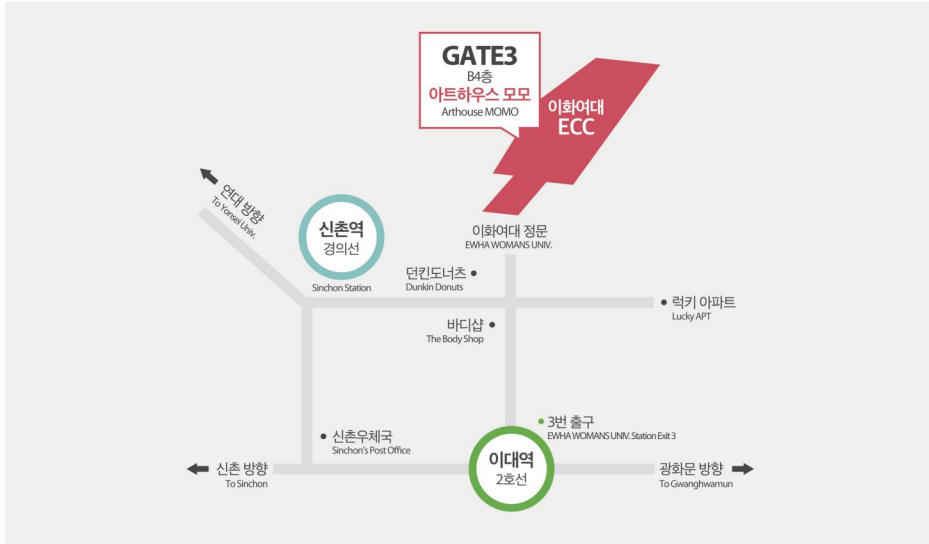
상영관 운영 안내 Theater Information

-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영관 입장은 상영 10분 전부터 가능하며, 상영 시작 10분 뒤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므로 꼭 본인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상영 중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관 입장은 영화의 관람등급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어린이와 동반 관람하시는 경우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제 부탁드립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휴대전화, 카메라 등)은 불가합니다.
- The screenings begin on time. You can enter the theater from 10 minutes before the film begins. If you are late more than 10 minutes, you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 As the seats are assigned on reservation, please take the assigned seat only.
- Your seat will not be guaranteed if you arrive after a screening begins. In such cases, please follow staff member's guide to an empty seat.
- Please refrain from moving around or re-entering the theater during the screening.
- Age restrictions on films will be strictly enforced. Children aged 7 and under are not allowed into the theaters regardless of accompanying guardians.
- No food or drinks are allowed in the theaters to keep the screening environment pleasant.
- Any unauthorized audio and video recordings of the films are prohibited by law.



상영관 안내 서울

Theater Information Seoul



아트하우스 모모 Arthouse MOMO

이화여자대학교 ECC B402 (ECC 3번 출구를 이용) TEL 02-363-5333
B402(ECC gate 3), Ewha Campus Complex, Ewha Womans Univ. TEL 02-363-5333

지하철 Subway

2호선 이대역 3번 출구 300m 직진
Ewha Womans Univ. Station (Line 2) Exit No. 3, 300m from the Exit 3

버스 Bus

간선 BLUE 153, 171, 172, 173, 270, 271A, 271B, 272, 273, 470, 472, 601, 602, 603, 606, 672, 673, 674, 700, 707, 710, 721, 750A, 750B, 751
지선 GREEN 5713, 5714, 6712, 6714, 7011, 7017, 7024, 7611, 7713, 7737
광역 RED 1000, 1004, 1100, 1101, 1200, 1300, 1301, 1302, 1400, 1500, 1601, 2000, M7106, M7111, M7119, G7111

주차 안내 Parking

- 이화여자대학교 지하주차장 이용, 극장이 위치한 지하4층은 D블록 1번 엘리베이터 이용
- 할인권 4시간 2,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극장 매표소에서 주차권을 받은 후 정산소에 제시)
- 2편 이상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극장 매표소에서 종일 주차권(5,000원) 구매가능
- 이화여대 정문은 평일과 토요일 20:00에 폐쇄되니 이후에는 후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과 일요일은 정문이 폐쇄되니 후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CC underground parking lot is available.
- Up to 4 hours : KRW 2,000, every 10 minutes thereafter KRW 1,000
- Please receive a validation stamp on both movie ticket and parking ticket at the box office of Arthouse MOMO.
- If you watch two movies in one day, you can purchase a one-day parking permit for KRW 5,000.
- Main gate of Ewha Womans Univ. is closed at 20:00 on weekdays and on Saturdays. Please use back gate after then.
- Please note that the main gate is closed on Sundays and holidays, so please use the back gate.



상영관 안내 부산

Theater Information Busan



영화의 전당 Busan Cinema Cente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TEL 051-780-6000
120, Suyeonggangbyeon-daero, Haeundae-gu, Busan, Korea, TEL 051-780-6000

지하철 Subway

2호선 센텀시티 12번, 6번출구, 도보 10분
Centum City Station (Line 2) , 10 minutes on foot from exit 6 or 12

버스 Bus

지선 GREEN - 신세계백화점 하차 : 5-1, 39, 40, 63, 141, 155 (하차 후, 도보 5분)
- Take Nos, 5-1, 39, 40, 63, 141, 155 and get off at Shinsegae Dept. Store Station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하차 : 115, 181, 307 (하차 후, 도보 5분)
- Take Nos, 115, 181, 307 and get off at Lotte Dept. Store Station
- 영화의전당 하차 : 139
- Take Nos, 139 and get off at BUSAN CINEMA CENTER Station
광역 RED - 1001, 1002 (센텀시티역 백스코 하차 후, 도보 10분)
- Take Nos, 1001, 1002 and get off at Centum City Station(BEXCO)

주차 안내 Parking

- 지하주차장 이용
- 영화티켓 제시 시 3시간 이내 무료, 이후 30분당 1,000원
- Underground parking lot is available.
- Up to 3 hours with ticket: free, every 30 minutes thereafter KRW 1,000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서울 Seoul | 아트하우스 모모 1관 Arthouse MOMO 1

	7/16 (Thu)	7/17 (Fri)	7/18 (Sat)	7/19 (Sun)	7/20 (Mon)	7/21 (Tue)
1회 11:30		유산 Heritages 96'	11:00 완벽한 후보자 The Perfect Candidate 101' ACO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 Photocopy 96'		이름 없는 성자 The Unknown Saint 100'
2회 14:00	여기가 천국 It Must Be Heaven 97'	하이파 거리 Haifa Street 79'	이름 없는 성자 The Unknown Saint 100'	누라는 꿈꾼다 Noura's Dream 92'	17: 축구하는 소녀들 17 74'	완벽한 후보자 The Perfect Candidate 101'
3회 16:30	누라는 꿈꾼다 Noura's Dream 92'	동굴 The Cave 106'	파피차 Papicha 105' OP	유산 Heritages 96' ACO	바다의 소녀 Scales 75'	파피차 Papicha 105'
4회 19:30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 Photocopy 96' ACO	17: 축구하는 소녀들 17 74'	20:30 바다의 소녀 Scales 75'	하이파 거리 Haifa Street 79'	여기가 천국 It Must Be Heaven 97' AC	동굴 The Cave 106'

부산 Busan | 영화의전당 소극장 Busan Cinema Center Cinema II

	7/16 (Thu)	7/17 (Fri)	7/18 (Sat)	7/19 (Sun)	7/20 (Mon)	7/21 (Tue)
1회			11:00 17: 축구하는 소녀들 17 74'	10:50 바다의 소녀 Scales 75'		
2회			12:50 여기가 천국 It Must Be Heaven 97'	12:40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 Photocopy 96'		
3회	15:20 마흐무드의 복사 가게 Photocopy 96'	15:00 완벽한 후보자 The Perfect Candidate 101'	15:00 파피차 Papicha 105'	14:50 완벽한 후보자 The Perfect Candidate 101'	15:00 파피차 Papicha 105'	14:40 여기가 천국 It Must Be Heaven 97'
4회	17:30 하이파 거리 Haifa Street 79'	17:15 유산 Heritages 96'	17:10 이름 없는 성자 The Unknown Saint 100'	17:00 동굴 The Cave 106'	17:20 유산 Heritages 96'	17:00 동굴 The Cave 106'
5회	19:30 누라는 꿈꾼다 Noura's Dream 92'	19:30 바다의 소녀 Scales 75'	19:30 누라는 꿈꾼다 Noura's Dream 92'	19:30 하이파 거리 Haifa Street 79'	19:30 17: 축구하는 소녀들 17 74'	19:30 이름 없는 성자 The Unknown Saint 100'

* 모든 상영작은 한글자막 및 영어자막이 있습니다. All screening films are subtitled in Korean and English.

* **AC** 아라비안 시네토크 Arabian Cine-Talk | **ACO** 아라비안 시네토크 온라인 Arabian Cine-Talk Online | **OP** 오픈 토크 Open Talk



**S-OIL is on a strong pace,
Standing tall as the most competitive player
in the energy & chemical industry.**

Raising Korea's national prestige in the world as an exporter of petroleum and broadening its horizon to the petrochemical sector, S-OIL aspires to sharpen its competitive edge in key businesses and fuels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with the RUC·ODC Project. This largest-ever investment project building the largest single site petrochemical plant in Korea will mark a proud milestone in S-OIL's quantum leap towards the brighter future.

